

오늘의 날씨와 생활

7월 13일 수요일 음 6월 15일 (7월)

기상정보

호림

27-34℃

파고 0.5-1.5m

파고 0.5-1.5m

파고 0.5-1.5m

파고 0.5-1.5m

파고 0.5-1.5m

26-31℃

27-30℃

26-31℃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 주

30%

30%

성 산

30%

30%

고 산

30%

30%

서귀포

3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호리고 비

28/33℃

모레

호리고 비

26/30℃

월드뉴스

건강&생활

어깨의 석회화 견염

‘재택근무 비자’로 휴양지 유입 확산

중남미·유럽 등 25개국 도입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객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중남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원격근무 근로자에게 장기 체류 비자를 주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고 BBC 방송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싱크탱크 이민정책연구소(MPI) 자료에 따르면 현재 약 25개국이 원격근무 근로자를 대상으로 이른바 ‘디지털 노마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중남미에서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바베이도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엔티가바 부다 등이 원격근무 비자를 도입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 헝가리, 크로아티아,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몰타, 키프로스, 조지아 등이 비자

발급 국가다. 아프리카에 있는 휴양지 모리셔스, 세이셸과 아시아 아랍에미리트, 스리랑카도 원격근무를 하는 사람을 위한 별도 비자 제도를 운용 중이다.

비자 명칭은 디지털 노마드 비자 외에 ‘원격근무 비자’, ‘화이트 카드’, ‘프리미엄 비자’ 등으로 다양하지만, 도입 취지는 비슷하다. 일정한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에게 장기 체류 허가를 내주겠다는 것이다.

물론 비자 발급에 필요한 조건은 국가별로 다르다.

개인 디지털 기기 이용자(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없음.)

연합뉴스

공직자 기고의 ‘선한 부메랑’

부진근

서귀포시 공보실장

공직자를 만났지만 청렴에 위배돼 도리어 커피를 얻어 먹고 왔다고 했다. 두 번의 전화통화를 하면서 묘한 희열이 밀려왔다.

공직자들 기고가 시민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파급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기사를 보고 침묵하는 다수의 시민도 있지만 적극적 행동으로 표현하는 시민도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이런 시민과 공감되는 기고를 쓰는 직원들과 같이 근무한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기까지 했다.

갑수목 행정환경이 복잡 다양해지고 생활민원도 폭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런 훈훈한 사례를 전해주는 시민들이 있어 공직자들은 힐링이 되고 힘이 난다. 아마도 기고를 쓴 해당 직원은 시민방문으로 더욱 사기가 드높아 졌으리라 확신을 한다. 이 좋은 기운을 받아 앞으로도 더욱 친절하게 시민들을 모실 것을 다짐해 보면서 서귀포시 파이팅을 외쳐본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다 함께 참여해요

오은영

서귀포소방서 중문119센터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최근 전 연령층에 걸쳐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SNS가 활성화 됨에 따라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제주소 방안전본부는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대처 관계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화재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인명,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로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참고처럼 활용해 물건을 적치하거나, 훼손된 상태로 방치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같이 부주의한 행동은 큰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20년 이천몰류센터 화재와 같은 사건들은 국민들로 하여금 비상구와 같은 피난시설의 중요성을

한리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건일 편집국장 이윤형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귤요목

장마때 분양

유라조생 2년생

천혜향 2년생

감평 2년생

황금향 5년생

천혜향 3.4년생, 황금향 3.4년생

한라봉옴 3.4년생, 남잔해 3.4년생

부리는 5년생 양묘계약 합니다.

※ 분양은 2022년 10월 30일

매월을 상귀리 716번지 870평

한림종묘사

010-3690-2453, 010-8820-5769

감귤 신품종 분양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탐빛1호, 명유자, 아마나스, 레몬, 명자1-2년생

조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유라실생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분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농장위치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 18-2003-20-09

자원종묘

대표 :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

감귤요목

아스미 4, 5년생

당 17.4브릭스 산 1.0인 최고 품질의 아스미는 소득이 월등합니다. 수확량이 많고 해가리가 거의 없으며, 판매 단가가 높습니다. 아스미는 이제 시작단계로서, 그 앞길이 창창합니다. 일본의 품종보호 신청일은 2018년 1월 15일인데, 석파농산은 그 이전에 생산판매허가를 받고 생산한 4.5년생을 판매하므로, 로얄티 등 일본각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유라실생 하우스 값 많은 견학바랍니다.

유라조생 1, 2년생 하굴 4, 8년생

천혜향 1, 4년생 궁천 3, 5, 8년생

레드향(특목) 1, 4년생 궁천 변이(오하라배니) 2, 3년생

하례조생 3년생 레몬 3년생

고림조생 5년생 황금향 1, 4년생

한라봉 1, 2년생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속도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자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

품질이 우수한 국내육성 [신품종]

감귤 포트묘목 분양

[경쟁력 있는 우량품종, 국내 신품종 육종 및 고품질 포트묘목 공급]

포트묘목?

▶ 전부터 형성된 뿌리신상 방지

▶ 미수익기간 단축

▶ 한곳에 모아 관리가 수월함

육묘시 작은 플라스틱 포트나 종이포트에 흙을 넣고 이것에 종자를 파종해서 키운묘를 말합니다.

이식을 하지 않아 뿌리손상이 적고 전부터 형상에 좋으며 미수익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과수우량품종 [1~3년생]

한라봉 / 천혜향 / 레드향 / 황금향 / 카라향 / 궁천

유라조생 / 흥진 / 하굴 / 금굴 / 레몬 다수 품종보유

국내육성 신품종

국내에서 육성한 우수한 감귤 신품종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하례조생

사라향 / 제라몬 / 미니향

푸른지계장원농장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푸른지계

농업회사법인(주)장원농장

제 1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3083 / 제 2 육묘장 - 제주시 조천읍 선술리 2998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3-20-01호

010-4450-4316 / 010-6550-4316